강남구 청담동

배우 오지호, 코로나 여파 이겨내고 스크린에서도 흥행할 수 있을까



1999년 CF모델로 데뷔한 배우 오지호는 단역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인지도를 쌓아온 배우다. 안양과학대학교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정지영 감독의 영화 '까'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데뷔했다.

'까'의 촬영감독이 오지호의 큰 키와 시원하고 이국적인 마스크를 보고 모델로 캐스팅해 이후 약 1년간 농심 '오징어짬뽕' 등 다양한 제품의 CF 모델을 맡았다.

오지호는 1999년 한 해에만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10여편의 CF에 출연할 정도로 광고모델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던 중 영화 오디션 참여 기회를 얻게 됐으며 영화 '미인'에서 주연으로 정식 데뷔한다. 오지호는 "대사를 못하니 당연히 불합격일 줄 알았는데 기회가 닿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오지호는 극 중 농밀한 베드신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기는 했으나 흥행에는



대우로얄카운티2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6-5

실패했다. 특히 그는 데뷔 초만 해도 지금과는 평가가 사뭇 달랐다. 어눌하고 어색한 연기로 외모만 출중한 배우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4년 KBS2 드라마 '두 번째 프러포즈'에서 여자의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솔직 담백남 남경수 역을 훌륭히 소화하며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 드라마를 통해 그는 연말 시상식에서 남자 조연상을 받았다.

또 오지호는 이후부터 주연 여배우와의 호흡이 좋은 배우로 호평받았다. 그가 출연한 작품 중 MBC '환상의 커플' '내조의 여왕', KBS2 '직장의 신' 등 흥행한 드라마 대부분이 그러했다.

선 굵은 외모와는 상반된 코믹 연기로 대중을 사로잡은 오지호는 이후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배우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KBS2 '추노', OCN '처용' 시리즈 등에서 큰 키를 활용한 시원한 액션 연기를 보여주는가 하면 MBC '마이 리틀 베이비', SBS '키스 먼저 할까요' 등에서는 로맨틱 코미디의 맛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KBS2 '왜 그래 풍상씨' 등의 드라마와 '연애의 맛' '아일랜드-시간을 훔치는 섬' '대결' '커피메이트' '악몽' '프리즈너' 등의 영화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MBC '진짜사나이 300', SBS '정글의 법칙', KBS2 '천하무적 토요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감을 자랑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오지호는 영화 '태백권'에 출연했다. '태백권'은 태백권의 전승자가 사라진 사형을 찾기 위해 속세로 내려왔다가 지압원을 차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예측불허 코믹 액션물이다.

그는 태백권의 강점을 살린 혈맥을 꿰뚫어 보는 숨은 고수지만, 경제관념 없는 허당 가장인 성준 역을 맡았다. 그는 액션 연기를 소화하기 위해 닭가슴살만 먹는 열정을 보이며 몸무게 4kg를 감량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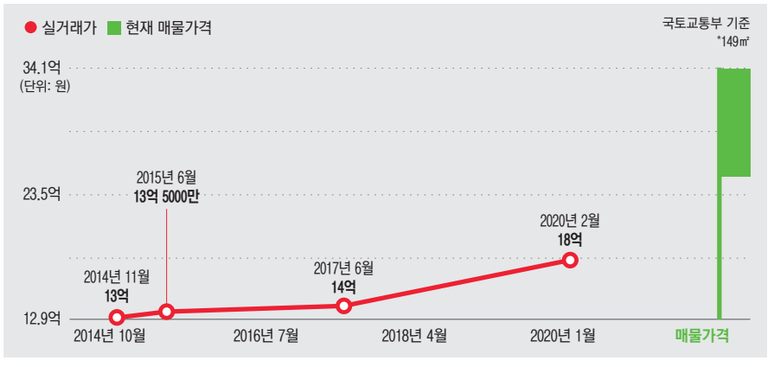
또 그는 이달 8일 개봉한 영화 '이번엔 잘 되겠지'에 특별 출연했다. 영화 '이번엔 잘 되겠지'는 코로나19라는 일생 최악의 위기를 만난 소상공인 치킨집 사장 승훈(윤다훈)이 거부할 수 없는 치킨집 아르바이트생 서진(남지우)의 시나리오를 발견하고 영화 제작에 뛰어들며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담은 휴먼 코미디 영화다.

오지호는 한강에서 유유히 낚시를 즐기는 프로 낚시꾼 역을 맡아 카메오로서 영화를 한층 빛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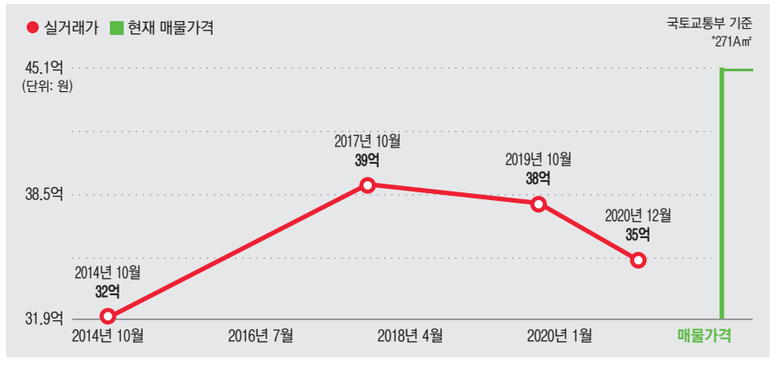
목화아파트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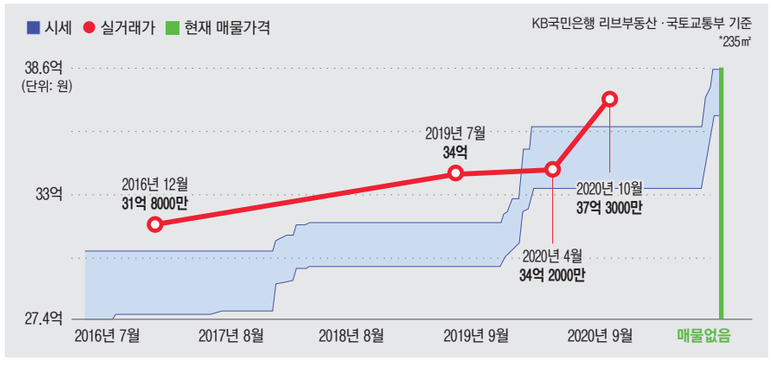
이니그마빌

서울 강남구 청담동 94



청담동양파라곤

서울 강남구 청담동 69-18



구상욱 현)배재대학교 벤처창업학 교수



구상욱 배재대학교 벤처창업학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대학교 건설관리학 석사, 미시간대학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대우건설을 거쳐 아서앤더슨 이사, 아서디리틀 이사, ATKearney 이사, 오픈타이드 이사,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FMI Corporation 한국법인 대표, 행정자치부 중앙진단팀 팀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국제학부 조교수에 이어 벤처창업학 교수가 된 그는 2015년 세계적인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32판에 등재되기도 했다. 구 교수는 경영전략분야 플랫폼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전략을 연구하면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꾸준히 게재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박원호 현)디아이 대표이사 회장



박원호 디아이 대표이사 회장은 연세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반도체검사장비 시장에서 주목받는 디아이의 회장이지만 대중에는 가수 싸이의 아버지로 더 유명하다. 싸이의 조부이자 박원호 회장의 부친인 고(故) 박기억 창업주가 1955년 일본에서 광학제품을 들여와 파는 수입업체인 무역회사 동일상사를 설립했다. 이를 모태로 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제조업체 디아이는 삼성전자,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박 회장은 초정밀을 요구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력을 확보해 디아이를 업계의 강자로 키워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이 불었을 당시 디아이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와는 전혀 사업 연관성이 없었지만 1000원대였던 주가가 단숨에 1만원대까지 치솟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구재상 현)케이클라비스 대표이사 회장



구재상 케이클라비스 대표이사 회장은 연세대학교 상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최고경제인과정을 수료했다. 펀드투자의 신화라 일컬어지는 그는 1987년 동원증권에 입사해 1996년 32세 때 최연소 지점장이 돼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 당시 동원증권 중앙지점장이었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동원증권 서초지점장이었던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과 손을 잡고 미래에셋그룹 지주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을 차렸다. 구 회장은 2002년부터 10년간 미래에셋운용의 대표 및 운용부문 부회장을 맡았다. 2012년 6월 미래에셋운용을 떠나 케이클라비스자문을 설립했으며 이 회사가 처음 내놓은 자문형랩 상품에 1주일 만에 1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며 구 회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기도 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국유부동산 101건, 온비드 통해 오늘부터 대부 · 매각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총 101건의 국유부동산을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매각을 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신규 물건 68건과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33건이 포함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각 부동산의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축 공공건축물 19건 친환경 설계 강화

경기도

경기도가 신축 중인 공공건축물 19건에 법령상 의무 기준보다 더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적용해 설계 심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9년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조례'를 개정해 현행 법령 기준보다 친환경 기술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은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인증(3000㎡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 기술 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 대상 건축물의 면적 기준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설계 단계인 공공건축물 19건을 심의하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가 반영된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 △1000㎡ 이상~3000㎡ 미만 북부 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 △3000㎡ 이상 경기도서관 1건 등이다.

대학생 주거안정 위한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서울 성동구는 26일부터 30일까지 13명의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는 올해 초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새로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3·4호점을 개소, 13곳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 25만원, 공과금 등 평균 시세 반값의 주거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상생학사'는 학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거주비용을 제공, 인근 대학가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건물 공실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보장한다. 운영 이래 총 63가구의 청년이 입주, 초반부터 지역 주민과 입주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상생학사'는 20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한양대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됐다.



성동구 상생학사 1호점 전경

성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 그리고 집주인들이 협력해 한양대 인근 평균 시세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원룸을 집주인이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원으로 낮췄다.

학생들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보증금 2900만원을 연 1% 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성동구와 한양대가 각 7만5000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법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청년들이 방값과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현실에서 일명 '반값 기숙사'로 주거안정을 도모, 특히 사근동에 밀집된 1인 가구의 높은 거주비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역 사회 청년들의 자립 디딤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